

# 광주·전남 '생활 SOC' 국비 확보 총력

###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업그레이드 활용 정부, 2022년까지 48조 투입...6월 가이드라인 발표

광주와 전남도, 22개 시·군이 정부의 '생활 SOC사업 3개년 계획'을 지역사회 기반시설 업그레이드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고속도로·항만·공항 등 기존 대규모SOC(사회간접자본)와 달리 체육관·도서관·주차장·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 확충에 향후 3년간 지방비 18조원을 포함, 총 4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26일 광주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각 실국은 6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앞서 시민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생활 SOC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6월 중

생활SOC관련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하나의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로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 생활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배포에 앞서 각 실국이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 6월 중 가이드라인이 접수되면 7월 중 신규 사업을 포함, 생활SOC 사업 관련 국비를 각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든 만큼, 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에 생활SOC 개념을 더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활SOC가 없는 곳은 새롭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시민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남군은 가족센터, 로컬푸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국민체육센터 등 총사업비 382억4500만원 규모의 복합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상 5층짜리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립,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편의 및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정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완도군도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SOC 복합화 시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SOC 복합화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올 첫 '남도문화탐방' 실시

###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 대상

광주시는 지난 25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을 대상으로 올 첫 '남도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도문화탐방은 광주전통문화관, 광주비엔날레 등 남도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06년 시작된 이후 총 92회에 걸쳐 4590여명이 참여했다. 올 첫 탐방은 '힐링과 체험'을 주제로 우치공원 등에서 드론체험, 피자·케이크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하며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15일 실시되는 2차 탐방에는

근대역사가 숨 쉬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의재미술관 투어, 무각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남도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만족도 높은 맞춤형 탐방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희망 탐방 장소와 프로그램을 일정 반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밖에 남도문화탐방과 함께 광주생활 안내서 배부, 문화예술협력사업 등 빛가람혁신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4월 이전공공기관 합동체중 설명회, 5월 대학교 이전공공기관 탐방 등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사업' 참여 공동체 공모

### 전남도, 31일까지

전남도가 '2019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의 거리감을 없애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확산,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사업 공모를 통해 6월중 어울림마을 공동체 14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주민공동체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와 환경 개선 분야 2가지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이 화합·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환경 개선 분야는 귀농어·귀촌인 지원·유치 공간이나 지역민 공동 사용 공간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도록 시설비 6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만 신청 가능하다. 그 중 귀농어·귀촌인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 귀농어·귀촌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미꽃 보러 풍암호수공원 오세요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내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송정공원 개발 대신 존치

###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결정 사업성 부족 개발사업자 없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을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밝혔다.

송정공원은 애초 중앙·일국·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결정돼 2018년 5월에 제안 공고했지

만,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월에도 민·관 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등 사업성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재공고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송정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가 비행 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제한과 가구 수 감소를 비롯한 분양시장의 어려움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광산구 소촌동 일대 송정공원은 공원 53만6274㎡, 녹지 44만9037㎡, 비공원시설 5만637㎡ 규모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사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또는 부분 매입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실효에 신속히 대응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전남도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도 지급한다.

한편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말까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점심식사하며 아이디어 논의 큰 성과

### 전문가 초청 '브라운 백 미팅'

전남도가 일자리·경제·신산업 분야 실국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브라운 백 미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운영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는 브라운 백 미팅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학 교수, 현장 전문가 등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관련 실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27일 흥성안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의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 최신 트렌드 및 기술개발 동향' 강

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가 진행됐다.

4월 9일에는 박세필 제주대 교수, 정한성 전남대 교수가 '줄기세포 산업화 거점 구축', 23일에는 문승일 서울대 교수와 유지상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이 '이차전지 산업 육성', 5월 16일에는 이재용 국토연구원 센터장이 '국내 스마트시티 개발 방향 및 추진 상황' 등을 주제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학습과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드론산업', '5G 상용화' 등 도가 육성할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